

단양팔경(丹陽八景)

안상진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백남대 (충북대학교 대학원)

단양팔경은 흔히 단양 제1팔경을 의미하나, 제1팔경과 제2팔경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큰쪽 봉우리는 「아들봉(처봉)」이라 부르고 있다. 도담삼봉은 유원지로서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종합휴게소, 전망대, 음악분수대, 목교, 정도전 동상 등이 조성되어 있다.

○ 단양제1팔경

1. 도담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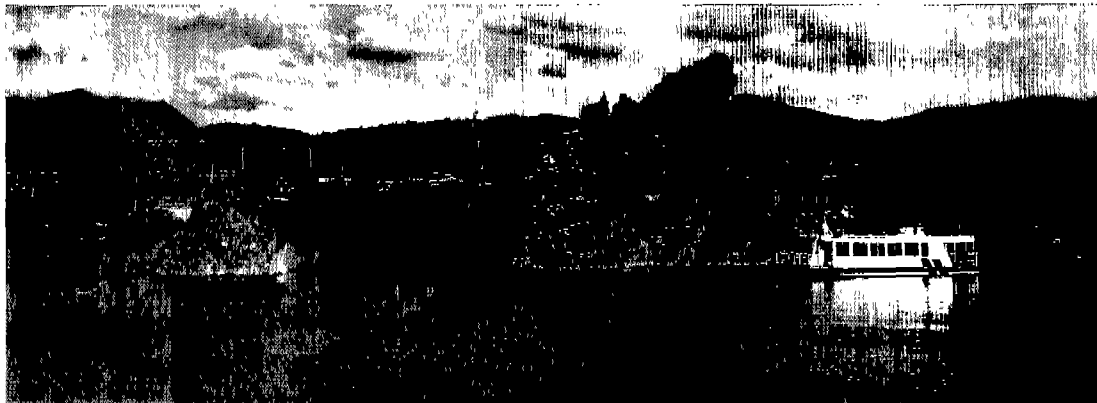
도담삼봉은 단양에서 3km, 시간으로는 5분정도 소요하고 단양시내에서 북쪽 1.5km이고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남한강의 맑은 물이 굽이치는 강한복판에 단양8경중에 으뜸가는 삼봉이며 조선개국 공신 정도전 선생이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후에 자기의 호를 삼봉이라 칭하게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세 봉우리중 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는 「주봉(남편봉)」이라 하며 왼쪽에 교태를 머금고 있는 봉우리는 「딸봉(첩봉)」이라 하며, 남편봉을 등지고 있는 오

○ 지은이 : 이황(호: 퇴계, 1501~1570, 명조3년(1548) 단양군수)

- 원문: 山明楓葉水明沙 (산명풍엽수명사)
三島斜陽帶晚舞 (삼도사양대만무)
爲酒仙搓橫翠壁 (위백선차횡취벽)
待看星月湧金波 (대간성월용금파)

- 풀이: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데
석양의 삼봉엔 저녁 노을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적에
별빛 달빛 아래 금빛 파도 너울 지더라



■ 일반기사

단양팔경(丹陽八景)

2. 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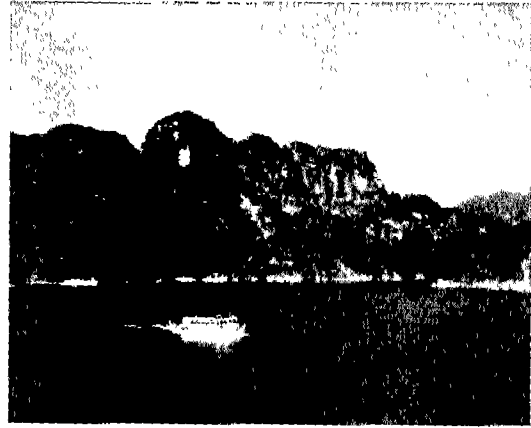
석문은 단양에서 3.3km, 시간으로는 5분정도 소요하고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도담삼봉에서 상류로 200m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미터가 넘는 동양 최대의 무지개 모양의 돌문이 있어 이를 석문이라 한다. 석문 좌측 하단에 작은 굴이 있는데 그 굴속에 깔린 암석은 수십개의 구름이 진데다가 물이 담겨 있고 마치 눈과 같dah여 「선인의 옥담」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하늘에 사는 마고 할미가 물을 길러 왔다가 비너를 잊어버려 손으로 흙을 판 것이 99마지기의 눈이 되었다 하며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3. 구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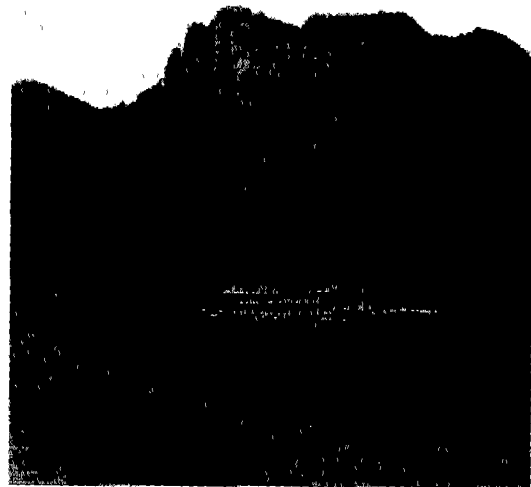
구담봉은 단양에서 20.1km, 시간으로는 30분정도 소요하고 단양에서 충주방면(36호선 국도)으로 가는 도중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남한강 줄기를 따라 깎아 지르는듯한 장엄한 기암절경위에 거북형상의 바위가 있어 옛부터 구담봉이라 칭하였다.

꽃이 만발한 봄철이나 가을단풍철에 천하제일의 절경이라 할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충주호 수중 경관이 제일 좋은 곳이다.



4. 옥순봉

옥순봉은 단양에서 21km, 30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양과 제천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명종때 단양군수로 역임한 퇴계 이황선생이 암벽에 「丹邱 洞門」라 각자하여 군의 경계가 되었다는 곳이다. 그리고 옥순봉은 소금강이라는 별칭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연산군때 김일손이 절경의 협곡을 극찬하였다고 한다. 요즘은 충주호반과 주변 산이 아름다워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옥순봉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기 위해 제비봉을 오르는 등산객이 많다.



○ 지은이 : 이황(호: 퇴계, 1501~1570, 명조3년 (1548) 단양군수)

- 원문: 碧水丹山界 (벽수단산계)
 淸風明月樓 (청풍명월루)
 仙人不可待 (선인불가대)
 招帳觸歸舟 (초장촉귀주)

- 풀이: 푸른 물은 단양의 경계를 이루고
 청풍에는 명월루가 있다.
 선인은 어찌 기다리지 않고
 섭섭하게 홀로 배만 돌아오는가



5. 사인암

사인암은 단양에서 15.3km, 25분정도 소요하며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말의 유학자이며 단양태생인 역동 우탁선생이 정4품 벼슬인 사인재직시 이곳에 청유했다는 사연에 따라 조선 성종때 6대 군수인 임제광 군수가 「사인암」이라 명명했다는 유래가 있다. 이곳은 수백자가 넘는 암벽과 절벽아래 흐르는 냇물이 맑고 깨끗하여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학자들은 역학에 조예가 깊은 우탁선생을 「역」이 「동」으로 옮겨 갔다고 하여 후세 학자들이 역동이라 불렀으며 대강면 사인암리와 적성면 하리에

○ 지은이 : 우탁선생

· 한손에 막대잡고 또 한손에 가시 쥐고
 늪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춘산(春山)에 눈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없다
 저그덧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자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기적비가 있고 애곡리에 사당이 있다.

6. 상선암

상선암은 단양에서 22.2km, 35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명종 때 권상하 선생이 명명했다는 유래가 있고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가 있었으나, 94년, 96년 수해로 인해 유실 99년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계곡의 맑은 물과 암반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옛부터 신선이 노닐던 바위라 하여 선암계곡이라 부르고 있다.



7. 중선암

조선 효종조의 문신인 윤곡 김수증이 명명했다는 유래가 있는 중선암은 단양에서 21.4km, 30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에 있으며 하선암에서 2km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삼선구곡의 중심지로 백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있고 여름철 피서지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 일반기사

단양팔경(丹陽八景)

8. 하선암

하선암은 단양에서 16.5km, 25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선유곡의 첫 경승지로 3층으로 된 흰바위는 넓이가 100여 척이나 되는 마당을 이루고 있다. 그 위에 커다란 동굴 암석이 놓여 있는데 그 형상이 부처 같다고 해서 불암이라 부르던 것을 조선 성종때 임제팔 군수가 선암이라 칭하였다. 이곳은 봄철에는 만산을 덮은 진달래, 철쭉, 가을에는 단풍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 단양제2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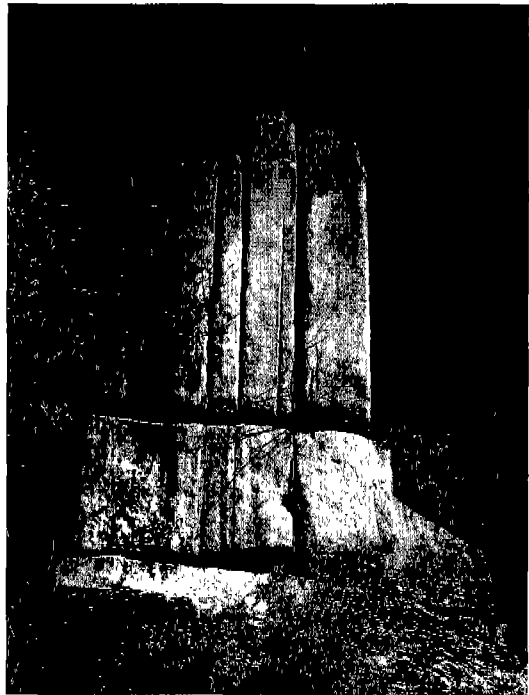
1. 죽령폭포

죽령폭포는 단양에서 17km, 30분소요하는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죽령역에서 중앙선을 따라 죽령을 관통하는 터널 입구 좌편에 있으며 계곡의 기암을 취돌아 9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마치 은옥으로 수를 놓은 것과 같은 신비경을 자아낸다.



2. 칠성암

칠성암은 단양에서 20.8km, 30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선암계곡에서 6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황정리 대홍사 절터에서 원통골 골짜기를 올라가면 막바지에 원통암이 있고 그 암자 서쪽에 하늘높이 치솟은 바위가 보인다. 그리고 30자의 큰 바위 위에 일곱 개를 깎아 세운듯한 바위가 70자 높이로 7개가 솟아 있어 이를 칠성암이라 부른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기도 드리면 득남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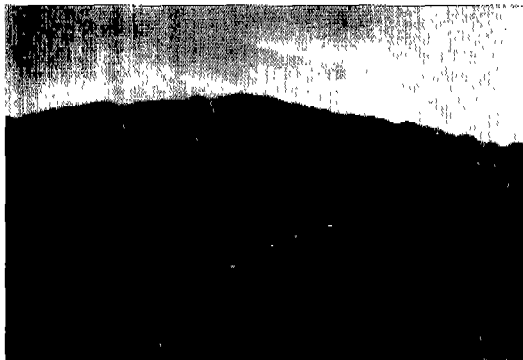
3. 북벽

북벽은 단양에서 22.9km, 40분 소요되는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다. 면소재지에서 남한강 상류로 올라가면 병풍처럼 둘러싼 절벽이 있는데 당시 이보상 태수가 벽면에 「북벽」이라 조각해 붙여진 이름으로 여름철 피서지 및 래프팅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높이 30~50m의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남한강을 따라 300m길이 정도이다.



4. 구봉팔문

구봉팔문은 단양에서 20.9km, 30분정도 소요하는 단양군 가곡면 보말리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의 지맥이 9개의 봉우리를 이루어 그 사이사이 골짜기가 8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구봉팔문」이라 부른다. 이곳은 옛날에 불제자가 범문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오르려 애를 쓴 곳이라 하여 「범월팔문」이라고도 한다.



5. 일광굴

일광굴은 단양에서 21.9km, 30분정도 소요되는

단양군 어상천면 입현리(삼태산)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형성 동굴로서 전장 1km로 굴 천장에 구멍이 있어 햇빛이 굴안을 비추고 있으므로 이를 일광굴이라 부른다. 높이 6m쯤 되는 석판위에 바둑판을 그린 자욱이 있어 옛적에 신선이 놀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6. 다리안 산

다리안 산은 단양에서 6.7km, 15분정도 소요하는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에 있으며 소백산 아래의 수렴이 울창한 명산이다. 이곳은 "나무 사다리를 타고 접근해야만 겨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여 다리안이라고 부른다. 십승지중에서도 으뜸가는 피난처로 알려져 있고 "임오군란" 때는 명성왕후가 피난 왔던 곳이기도 하다.



7. 금수산

금수산은 단양에서 23.6km, 40분소요되는 단양군 적성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백악산이라 부르던 것을 퇴계 이황선생이 비단을 수놓은 듯 하다 하여 그 이후로 「금수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산중턱에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어 있으며 등산객이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려 한참을 먹어야 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 일반기사

단양팔경(丹陽八景)



8. 온달산성

온달산성은 단양에서 21.5km, 30분정도 소요하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에 있고 고구려와 신라가 남한강을 경계로 성을 쌓아 영토확장을 위해 전초기지로

쓰던 곳이다. 온달성의 길이는 922m로 고문헌에는 성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은 고구려 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노용제, 단양군 (2000), "단양의 향기찾아" 정은문화사

단양군,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단양", 단양군